

유학동양학과 재학생들에게

유학과 87학번 동기들입니다.

30년도 훨씬 이전의 선배들이 불쑥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나마 선배들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2020년 10월 중순경 색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활기찬 대학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그마한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세기에 대학을 다녔던 유학과 선배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취지는 “최소 1년동안은 유학동양학과 학생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자.” 입니다.

1987년에 입학한 선배들은 5공화국이라는 암울한 정치적 상황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고,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울분과 고뇌로 2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직선제 생취로 제도적 민주화의 시금석은 놓았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마저도 사회정치적 환경이 그리 건강하게 변한 것은 아닌 듯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이제 그때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배가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젊은 시절 소중한 대학의 낭만과 청춘의 시간, 그리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다른 형태의 치열한 삶과 바꾼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이제 사회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안목과 여유도 생기던 차에 유학과 87학번 동기들끼리 후배들을 위한 작은 기쁨 한 가지를 실행하자는 마음으로 “유학대[紐帶] 생활장학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다른 학번 동문들도 동참하여, 그 첫 번째 실천을 유학동양학과 재학생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식이나 대학생들의 생활을 눈여겨보아도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 스펙 쌓기, 아르바이트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이 작은 생활장학금이 재학생들의 시간을 벌여주어 청춘의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 여러분이 훗날 부모 나이가 되었을 때 대학 시절의 좋은 회상
거리 하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훗날 후배들에게 또 다시 배
풀어준다면 그건 더욱 값진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장차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후회
하거나 기죽지 말고 청년의 浩然之氣/내공을 쌓는 일에 더욱 정진하기 바랍
니다.

우리 훗날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儒學大 출신 成均人으로 멋지게 만납시다.

2020년 9월 한가위를 앞두고

유학과 87학번 동기

김 동 민, 김 정 규, 이 욱, 장 동 일, 조 장 연, 허 익 현



김정규

이욱



조장연



외 85, 88, 90학번 7인 올림